

국립세종수목원에서선 ‘뉴턴의 사과나무’ 만날 수 있다

정충 첫 발견 은행나무, 멘델 포도나무 등 ‘과학적 발견’ 식물 전시

대구 도동 측백나무, 안면도 먹넉출 등 천연기념물 보호수도

오는 6월 준공 예정인 산림청 국립세종수목원 후계목정원에서 과학적 발견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나무들을 만날 수 있다.

1일 산림청에 따르면 국립세종수목원이 상징성, 역사성, 희귀성 등 이야기가 있는 해외 식물유전자원을 도입·증식 중이다. 이야기가 있는 나무 3종은 고이

시카와식물원(일본)에서 도입돼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증식 중이다. 나무 3종은 뉴턴의 사과나무(품종: Flower of Kent), 정충(정자)이 처음 발견된 은행나무, 멘델의 포도나무 등이다.

‘뉴턴의 사과나무’는 아이작 뉴턴(Isaac Newton)이 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만유인

력 법칙을 발견했다는 그 사과나무의 후손이다.

은행나무는 겉씨식물에서 처음으로 정충이 발견(Sakugoro Hirase, 1894)된 나무로 양치식물과 종자식물을 연결하는 식물로 알려져 있다.

멘델의 포도나무는 멘델의 법칙으로 널리 알려진 멘델이 포도나무



품종을 개량(접목)해서 농민에게 보급함으로써 과학자의 능력을 사

회에 환원한 좋은 사례이다. 이밖에 국립세종수목원 후계목

정원에는 ‘대구 도동 측백나무숲(천연기념물 제1호, 1962)’의 측백나무, 안면도에서만 자생하는 먹넉출 등 천연기념물, 보호수, 이야기가 있는 나무 등 식물 유전자원 27종이 있다.

이재원 산림청 수목원조성사업 단장은 “관람객들은 후계목정원에서 해외에서 도입된 식물 유전자원을 포함한 우리나라 천연기념물인 식물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면서 “이를 통해 자연에 대한 감성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공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파란 하늘, 코로나 덕분?...서울 초미세먼지 20% 줄었다

12~3월 평균농도 28 $\mu\text{g}/\text{m}^3$, 1년전엔 35 $\mu\text{g}/\text{m}^3$

이번 미세먼지 시즌, 서울의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2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중국 공장가동이 중단되는 등 영향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서울 지역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28 $\mu\text{g}/\text{m}^3$ 를 기록, 1년 전 같은 기간 35 $\mu\text{g}/\text{m}^3$ 와 비교해 23% 감소했다.

월별로 지난해 12월 평균농도는

28 $\mu\text{g}/\text{m}^3$ 로 2018년 12월보다 4 $\mu\text{g}/\text{m}^3$ 높았으나, 1~3월은 눈에 띄게 낮아졌다.

올 1월과 2월은 29 $\mu\text{g}/\text{m}^3$, 28 $\mu\text{g}/\text{m}^3$ 를 기록, 지난해보다 각각 9 $\mu\text{g}/\text{m}^3$, 7 $\mu\text{g}/\text{m}^3$ 감소했다. 특히 3월은 25 $\mu\text{g}/\text{m}^3$ 를 나타내 지난해보다 무려 20 $\mu\text{g}/\text{m}^3$ 낮아졌다.

이 기간 초미세먼지 ‘ 좋음 ’ 을 나타낸 일수는 11일에서 21일로 10일이 늘었고,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인 50 $\mu\text{g}/\text{m}^3$ 를 초과하는 고농도 일수는 21일에서 7일로 3분의 1이 됐다.

이렇게 대기질이 개선된 것은 코로나19 영향과 유리한 기상여건, 시가 처음으로 실시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등 복합적인 요인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발표된 한·중·일 공동연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초미세먼지 발생원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32%로 분석됐다. 중국에서는 올 초 코로나19가 유행하는 기간 대대적으로 공장 가동을 중단한 바 있다.

또 이 기간 평균 풍속은 1.9m/s에서 2.3m/s로 증가했고, 대기정체 일수는 71일에서 51일로 줄었다. 또 강수 일수는 16일에서 34일

로, 강수량은 67mm에서 152.5mm로 늘어나면서 미세먼지 감소에 유리한 여건이 조성됐다.

시는 지난해 12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처음으로 실시하면서 저감대책으로 수도·난방·사업장 등 4개 분야, 16개 사업을 추진했다.

녹색교통지역 5등급차량 운행제한, 친환경보일러 집중보급,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및 비산먼지 발생공사장 전수점검 등을 시행했다.

시는 첫번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정책효과를 서울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과 함께 면밀하게 평가·분석해 다음 시즌을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김윤호 기자

제주, ‘집콕육아’ 부모에 ‘놀이북’ 지원

부모-자녀 놀이방법 등 제공

제주특별자치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집콕육아’를 하고 있는 부모들에게 가정양육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제주특별자치도육아종합지원센터는 코로나19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할 수 있는 놀이방법을 담은 ‘놀이북’을 집으로 배달해준다고 1일 밝혔다.

배달 신청은 제주육아종합지원센터로 전화 또는 이메일, 페이스북 등을 통해 하면 된다.

놀이북은 매주 금요일 무료로 일괄 배송된다.

이와 함께 제주육아지원센터는 부모-자녀 상호작용 놀이 활동, 아이 마음 헤아리기 등의 영상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영상자료는 제주육아종합지원

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페이스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전화, 홈페이지)으로 영유아의 발달, 문제행동, 양육방법, 보육료 결제 등에 대해 무료로 상담도 진행할 수 있다.

제주육아종합지원센터는 코로나19가 종식되면 부모교육, 부모-자녀 체험 프로그램, 시간제 보육 등 영유아, 부모, 가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운영할 방침이다.

김인영 제주도 여성가족청소년과장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가정에서 양육하는 많은 부모들이 지쳐 있는 상황이다”며 “놀이북 무료지원 등 서비스 제공으로 가정 내 보육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유나 기자

건강 식초... 고창, 카페 시판

‘대한민국 식초문화도시’를 선포한 전북 고창군이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즐기는 식초 음료를 개발하고 홍보에 나섰다.

1일 고창군에 따르면 식초 음료 소비확산과 식초제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 이날부터 고창군청 1층에 있는 ‘아띠다방’을 비롯해 지역 곳곳의 카페에서 복분자 식초음료를 맛볼 수 있게 됐다.

현재까지 ‘커피를 부탁해’, ‘오월의 정원’, ‘바닐라테이크’와 정음시 전북과학대 앞 ‘인터그리드’가 식초음료 판매에 함께하기로 했다. 추후 협의를 통해 다른 관내·외 카페에도 식초음료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복분자 식초 음료는 복분자 식초의 새콤한 맛과 복분자 원액의 단맛이 환상적인 조화를 이룬다.

온기를 불어 넣어줄 따뜻한 차류, 블루베리 과육 등을 넣은 디저트류와 얼음과 탄산을 넣어 다가오는 여름에 깔끔하고 시원한 느낌으로 즐길 수 있는 아이스 음료 등이 선보인다.

발효식초 음료는 초산과 유기산이 풍부해 간의 해독을 돕고 몸속의 노폐물과 나트륨을 배출하는 등 디톡스 효과가 알려져 있다.

이에 더해 피로해소, 부종 해결에도 효과가 있어 기능성 음료로서 건강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메뉴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유기산 고창군수는 “맛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좋은 복분자 식초 음료를 다양하게 즐길 수 있도록 메뉴를 개발할 계획이다”며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고창 대표 디저트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윤호 기자



봄, 모두에게 위로를. 지난 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도서관 외벽에 봄을 맞아 새단장한 ‘봄바람 송덩 잘라 당신 고달픈 날 드리고 싶네’ 문구가 새겨진 서울꿈세김판이 걸려있다. 서울시는 지난 2월 4~17일 있었던 단 안 공모를 거쳐 이유린(26)씨의 글귀를 선정했다.

코로나19가 불러온 ‘19년 만에’ 서울 지하철 단축 운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서울 교통공사가 평일 심야에 지하철 운행은 1일부터 1시간 단축한다. 햇수로 무려 19년 만이다.

서울 지하철 1~9호선과 우이신설선의 운행이 이날부터 기존 오전 1시에서 오전 0시로 1시간 단축된다. 열차 막차 시간은 노선·역 사별로 다르다. 변경 시간표는 운영기관 홈페이지와 각 역사 등을 통해 공지된다.

서울 지하철 운행 1시간 단축은 지난 2002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이던 시절 이후 햇수로

19년 만이다. 당시 이전 대통령은 시장 취임 전 “지하철 정비 등으로 24시간 운행은 어렵겠지만 심야 1시간 연장 운행은 검토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고, 지난 2002년 12월 말 1~4호선을 우선 시행된 뒤 5~8호선으로 확대 운영됐다.

교통공사 관계자는 “오랜 기간 유지하던 운행 시간이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워낙 중대하다”며 “부득이하게 1시간 연장 운행을 중단하고 그 시간에 방역과 안전에 신경써야 하는 취지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또 지난 2월23일 코로나19 ‘심

각 단계 발령 이후 지속적인 방역 업무 증가로 방역 종사자들의 피로도가 커져 방역 품질 확보가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꼽았다. 교통공사 관계자는 “방역 업무를 하는 직원의 피로도가 상당하다. 휴사 수준”이라며 “이 분들에게 휴식을 보장하는 차원도 있다”고 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 등 지하철 운영기관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실제 방역 업무량이 2배에서 최대 4배(열차 객실 소독 기준)까지 늘었다.

김윤호 기자

강릉시, 학교에 납품 예정이던 농산물 시민에게 특별판매

강원 강릉시가 학교급식 납품 예정이던 친환경 농산물을 1일부터 시민들에게 특별 판매한다.

시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개학이 연기되자 학교 급식에 납품 예정이던 농산물이 처지곤란 상

태였다.

이에 시는 생산 농가에 도움을 주고자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

판매 행사상품은 시금치, 느타리버섯, 표고버섯, 근대이며 4개 품목이 묶여진 한 꾸러미를 1만원

에 판매한다.

구매를 원하는 시민들은 강릉원에 농협 로컬푸드매장을 찾으면 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생산농가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온라인 개학’ 중·고교 스마트기기 부족

교육급여대상자 우선으로 다자녀 등 고려해 지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학교 온라인 개학을 1주일 앞두고 대전지역 학생들의 스마트기기가 부족해 지원이 시급하다.

1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1차 스마트기기 수요조사 결과 총 9325대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는 보유량이 충분한데 비해 중·고등학교는 각각 989대와 1092대 등 2081대가 부족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교육청이 학교간 교류를 염두에 두고 파악한 스마트기기 보유량은 모두 8824대로, 이 경우에도 501대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주말간 교육부로부터 물량 지원을 받을 계획이며, 추가 수요와 다자녀, 기 기 고장 등 변수를 고려해 최대한 확보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지원 협조도 검토하고 있다.

스마트기기 지원은 교육급여대상자를 우선으로 하되 다자녀, 다문화 등을 고려해 이뤄질 예정이다. 다만 여건이 갖춰져 있거나, 앞서 지원받은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대전시교육청은 이날 오전 11시 온라인 개학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원격수업과 학사일정·돌봄교실 등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특히, 원격수업 지원을 위해 대전원양초, 변동중, 대성고 등 3개교를 원격수업 시범학교로 지정 운영하고 원격수업지원단으로 초·중·고 교사 130명을 구성해 온라인 강의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학사일정 조정을 위해 지난달 23일부터 온라인 개학 이전까지의 학교 수업일수와 수업시수는 감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원격수업이 어려운 유치원은 등원 개학이 가능할 때까지 휴업을 연장하고 놀이 중심 교육과정을 돌봄교실과 가정에 보급하기로 했다.

또, 대입일정 연기에 따른 고3 수험생 지원과 학생·교직원 안전 관리, 긴급돌봄 계속 운영, 학교 방역 강화를 위한 추정예산 투입 등 방안을 함께 마련했다.

김윤호 기자

충북서 고추·토마토에 ‘갈라병’ 발생



충북 진천군 농업기술센터는 고추와 토마토에 치명적인 토마토반점위조바이러스(TSWV·갈라병)이 발생했다고 1일 밝혔다.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토마토 모종을 비닐하우스에 옮겨 심은 19개 농가(13ha)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개 농가 0.5ha에서 갈라병이 발생했다. 면적은 5개 농가 2.6ha의 19.2%에 해당한다.

꽃노랑총채벌레에 의해 번지는 갈라병에 걸리면 잎에 반점이 생기거나 아랫잎이 말리기 시작해 고추와 토마토 육묘가 고사한다.

오유나 기자